【자유교회 소식】

1. 오늘도 예배로 모인 교우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 4월 8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3. 우리교회 초청으로 한국의 자유인교회 이현우 목사님이 3월 22일(수)부터 30일(목)까지 방문 중입니다.
4. 오늘 오후 4시부터 내일(27일) 아침까지 1박 2일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5. 정태훈 장로님이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5월 28일과 9월 10일에 미국교회와 스패니쉬 교회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00.00	
감사헌금:	$750.00	
주일헌금:	$65.00	
특별헌금:	$0.00	합계 $1,115.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 일 / 예 / 배

오전11:15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예배의 부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찬 양 팀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 같 이
기 도	Prayer	유선정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경봉독	디모데전서 6:7-12	인 도 자
설 교	함께 가난하여 모두를 살리는 삶	이현우 목사 (자유인교회)
찬 송	예수 따라 가며	다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최미선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주일오전 11시 15분
주 일 교 회 학 교	주일오전 11시
아 침 묵 상	월-금 오전 8:00
Youth Group	수 오후 7시(FFC Youth)

2023년 3월 26일 2023-13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 주일 설교 요약 ◘

함께 가난하여 모두를 살리는 삶

본문 : 딤전 6:7~12

23.03.26 자유교회 주일예배

인류 역사는 이른바 산업혁명 이후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구성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 안락함, 그리고 식욕을 마치 '신'처럼 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동물과 식물을 그 신을 위한 제물로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후 위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령 해수면이 낮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50년 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10절).

사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마 19:23)

성경은 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까요? 그 이유는 돈이 단순히 일 달러, 이 달러,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돈이 사람들에 의해 '신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의 지위에 오른 돈은 인류의 '예배'를 받으며,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인간 못지않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만 되면 동물들을 한없이 괴롭히죠. 돈만 되면 산을 다 깎아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돈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신학자의 글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함께 가난하여 모두를 살리는 삶…"

그렇습니다. 함께 굶어 죽자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함께 떵떵거리자는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도저히 기독교일 수 없는 이유는, 다 같이 떵떵거리자는 인류의 태도를 생태계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고,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모두가 상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우리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204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애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가 기후위기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non christian과 세계관의 차이가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친애하는 자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의미심장한 교회 이름처럼, 부디 돈과 번영의 신화에서 자유함을 얻어, 오직 주님의 뜻에만 결박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